23. 사진(촬영에 대해)

분재 감상 환경과 섬세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특정 분재의 디자인은 저작권 대상이 되므로 오미야 분재 미술관은 관람객에게 컬렉션 갤러리에서 사진 촬영을 삼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촬영은 일반적으로 인근 분재원에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미술관의 분재 정원 및 로비에서는 사진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약 60 점의 분재 전시는 계절별로 최적의 상태로 전시하기 위해 자주 변경됩니다. 그 중에는, 예를 들면 봄이나 여름에 꽃을 피우는 종이나, 겨울의 계절감을 잘 잡아낸 상록수 송백 분재 등이 포함됩니다. 미술관 2 층 분재 테라스와 로비에서는 정원의 넓은 화각의 풍경과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